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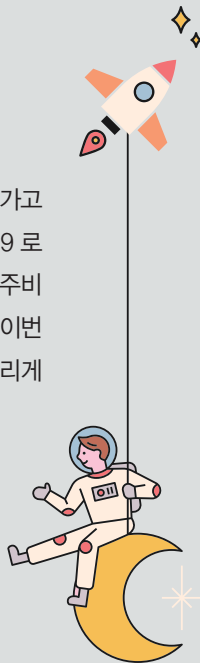
이달의 키워드

「이달의 키워드」는 11월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스페이스엑스 유인 우주선 비상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꿈이 현실화돼 가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9시 27분(한국시간) 펠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된 리질리언스는 우주비행사 4명을 싣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했다. 이번 비행이 성공하면 민간주도 우주왕복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국,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서명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정상들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15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참가하는 메가 FTA가 출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세계 7위 초대형 국적사 탄생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1988년 아시아나항공 출범 이후 32년간 이어진 양대 국적항공사 시대가 막을 내린다.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 원 투입 →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7,300억 원 투입 →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5,000억 원 투입 및 채권 3000억 원 인수 순으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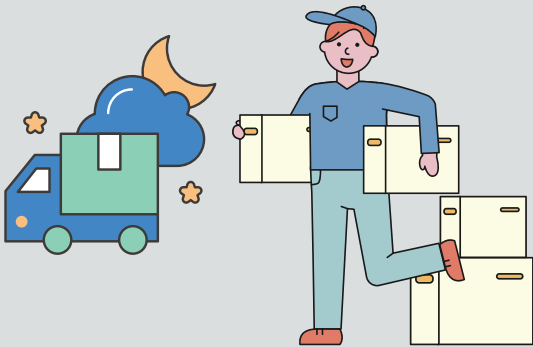
미세먼지 다시 시작

서울 8개월 만에 첫 주의보,
수도권·충청 사흘째 '나쁨'
중국 공장 다시 돌리고 난방 켜자
코로나19로 잊힌 미세먼지가 한
반도를 다시 덮쳤다.



마스크 과태료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심야택배 금지 주5일 시행

정부가 택배노동자의 1일 최대 작업시간과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등을 택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추진되며, 택배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바이든 “북핵 문제 긴밀히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2일 첫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자 취임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통화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고, 바이든 당선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